

경제

이코노 & 비즈 피플

임효섭 보해양조 신입 사장

“보해저축銀 피해보상 떠맡을 순 없다”

임건우 회장 발언 대주주 약속일 뿐 보해와 무관

이 악물고 경영 정상화... 시도민들 사랑에 보답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유동성 위기를 겪다 창해에탄을 인수...

▲“빠를 쥐는 자구의 노력으로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임건우 회장의 발언은 회사 대주주로서 약속일 뿐이다.



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 지금 또 다시 보해양조가 나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기술력이 뛰어난 보해양조에 대해 일본의 아사히나 기린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영권에 대한 문제는 없다.

회장을 비롯한 친인척 21.87% 등 모두 55.3%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보해양조의 경영권은 문제가 없다.

▲보해양조의 힘은 광주·전남 시·도민이다.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

임효섭 대표이사 사장은 무안 출신으로 지난 1971년 보해산업에 입사, 1988년부터 2001년까지 보해양조 근무, 2003년부터 창해에탄을, 창해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창해에탄을 33.16%, 임건우

창해에탄을 33.16%, 임건우



한가위 농축산물 직거래 특별장터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우복)는 6일 광주시 동구 KT정보센터 광장에 ‘한가위 농축산물 직거래 특별장터’를 열었다.

하도급 부조리·불공정 근절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광주 구청·교육청은 철저히 외면”

발주 한 건도 없어

하도급 부조리와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광주지역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단 한 건도 발주하지 않는 등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대한전통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올들어 8월 말까지 전국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통해 발

주한 공사는 모두 242건, 346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광주지역은 6건(2.5%)으로 전국 15개 자치단체 가운데 9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전체 6건의 발주 중 모두 광주시의 발주로, 5개 구청과 교육청의 발주 건수는 전무했다.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다. 전남의 경우 총 12건의 발주 중 전남도 등이 3건, 기초단체와 교육청이 9건으로 광주와 대조를 보였다.

전통건설협회 광주시회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크게 차이가 있는데 비해 광주는 광주시만 발주하고 5개 구청과 교육청 발주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산업 선진화 노력에도 미흡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복합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하는 제도로, 하도급 부조리와 불공정 행위 척결, 적정 공사비 확보,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2009년 시행사업을 거쳐 지난해 정부가 전면 도입했다.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대규모 채용 박람회

150개 대·중소기업 참여

오늘부터 광주 DJ센터서

7일부터 사흘간 광주 감대중전벤션센터에서 대규모 채용 박람회가 열린다.

채용박람회는 광주에서 열리는 ‘2011 지역발전 주간’ 행사 중 하나로 지식경제부와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며, 호남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150여 개 대·중소기업이 참여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광주·대불·여수·군산 등 산업단지를 비롯해 호남권 150여개 우수 중소기업이 우수인재 영입에 나서며, 모집 분야도 호텔메니저·사

무관리·생산·현장기술·연구개발·서비스 등 다양하다. 행사장에는 광주전남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 추진단 취업지원관과 광주고용노동청 취업지원관, 광주시·북구 우수인력지원관 등을 따로 설치해 운영한다.

또 구직자를 위한 취업 컨설팅, 인·적성 검사관, 취업 특강관, 직업체험관, 캐리커처, 면접 이미지 컨설팅, 무료 취업증명 사진촬영 등 각종 컨설팅도 해준다. 참가 희망 구직자는 채용박람회 홈페이지(www.kicoxjob.or.kr)를 통해 사전접수를 하고, 행사 당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준비해 현장면접에 참여하면 된다.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Table with job market statistics: 코스피지수 1766.71 (-19.12), 코스닥지수 465.35 (-15.08), 금리 (국고채 3년) 3.35% (0.00), 원·달러 환율 1074.90원 (+6.10)

화인코리아, 대통령에 공개서한 “대기업의 회사 강탈 막아달라”

‘KJB 사랑센터 5호점’ 선정식·후원기념 행사 광주은행, 여수 삼해원서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추석 한가위를 맞아 6일 오전 여수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여수 삼해원’에서 송기진 은행장과 전남동부리더스클럽 윤길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JB 사랑센터 5호점’ 선정식과 후원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광주은행과 광은리더스클럽(회장 김홍균)은 추석 한가위를 맞아 각각 200만원씩의 성금을 전달했다.

광주은행은 2009년 남구 소재 ‘신애원’을 ‘KJB 사랑센터 1호점’으로 복포 ‘목포 아동원’을 2호점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강진의 ‘강진자비원’과 담양 ‘혜림복지재단’을 각각 3호점과 4호점으로 선정, 지원하고 있다. 광주은행 임직원들도 광주 전남 177개 사회복지시설과 양로원, 독거노인 등 찾아 총 3900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광주·전남 대표 향토기업인 (주)화인코리아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특정 대기업의 회사 강탈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내 관심을 끌고 있다. 화인코리아는 6일 “수산전문 대기업인 사조그룹이 축산분야 진출의 발판을 위해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악의적으로 방해해 회사를 헐값에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화인코리아는 이 서한에서 “사조그룹이 대통령 친인척과의 친분을 사칭해 헐값으로 중소기업을 강탈하려고 한다”며 “이런 비극이 대한민국 기업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이 바로잡아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이낙연 국회의원(함평·영광·장성)은 이날 광주고등법원 민사부에 탄원서를 보내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인 화인코리아를 빼앗기 위해 담보채권을 사들이고 회생절차를 방해하는 대기업 사조그룹의 의도대로 법원이 회생절차를 기

각한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어긋나고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영암 생무화과 전국 이마트서 판매

영암산 생무화과를 전국 이마트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이마트는 영암군 230개 무화과 농가와 사전기획을 통해 100톤의 물량을 확보했으며 이를 이마트 전국 60개 점포에서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이마트는 자체 배송 시스템을 이용해 영암 농가 전체 생산량의 70%에 달하는 물량을 판매할 계획이며 신선도 유지를 위해 당일 수확·배송 원칙으로 전국판매에 나선다.

지난해 10월 광주지역 이마트 5개점에서 시범판매로 선보인 생무화과 7톤은 4일 만에 완판된 바 있다.

Large advertisement for '개업·성업' (Business/Success) featuring a grid of 48 small business listings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s.